

# 국내 에이즈 감염인 약 3천여명

글 \_ 편집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0월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 말 현재 국내 총 감염인 수는 2,99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591명이 사망하여, 2403명이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HIV에 신규로 감염된 내국인은 총 455명이며, 이중 감염경로가 밝혀진 304명 모두 이성간(155명) 혹은 동성간(149명)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398명)에 비해 14.3%가 증가한 것이다.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415명(91%), 여성 40명 (9%)으로 여전히 남성의 에이즈 감염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47명(3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명(26%), 20대 99명(22%), 50대 53명(14%), 60대 이상이 29명(6%), 10대 11명(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감염경로의 대부분이 성접촉

으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 콘돔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0월부터 실시한 공중과 콘돔광고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성병검진실과 민원실 등에 콘돔을 비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전문가들도 있다. 첩보작전처럼 은밀히 콘돔을 주고받는 콘돔광고와 공개적인 콘돔비치로 콘돔을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에이즈예방홍보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1월부터 9월 말까지 132명이 발견되었으며, 지난해 59명에서 크게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예방 홍보 및 상담을 위해 외국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연계된 종교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에이즈, 결핵, 성병 등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HIV/AIDS 연도별 발생 현황 (2004년 9월말 현재)

(단위 : 명)

계	2,994	410	10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4	455
남자	2,690	365	88	93	107	111	160	194	292	363	502	415
여자	304	45	19	12	17	18	26	25	35	35	32	40

» 신규 HIV/AIDS 감염인 성별·연령별 분포 (2004년 1월~9월)

연령	남자	여성	남자	여성	남자	여성
계	455	100.0	415	100.0	40	100.0
0~9	0	0.0	0	0.0	0	0.0
10~19	11	2.4	7	1.7	4	10.0
20~29	99	21.8	90	21.7	9	22.5
30~39	147	32.3	139	33.5	8	20.0
40~49	116	25.5	109	26.2	7	17.5
50~59	53	11.6	6	1.1	7	17.5
60 이상	29	6.4	24	5.8	5	12.5

(발견 당시 연령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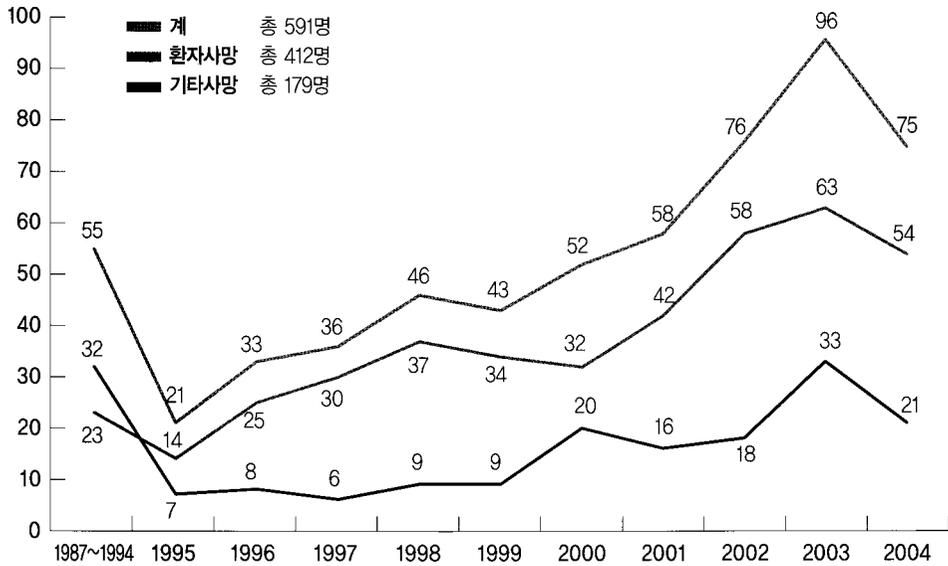
» AIDS 환자 연도별 보고현황 (2004년 9월말 현재)

(단위: 명)

연도	환자수
1987~1994	443
1995	27
1996	14
1997	22
1998	33
1999	35
2000	34
2001	32
2002	42
2003	88
2004	62
합계	54

» HIV/AIDS 연도별 사망자 현황 (2004년 9월말 현재)

(단위: 명)



(자료: 질병관리본부)